

주택대출 'DTI 40%' 전 금융권 확대... 이르면 내달 시행

은행돈 빌려 집 구하기 힘들어진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르면 2월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에 따른 소득수준별 대출가능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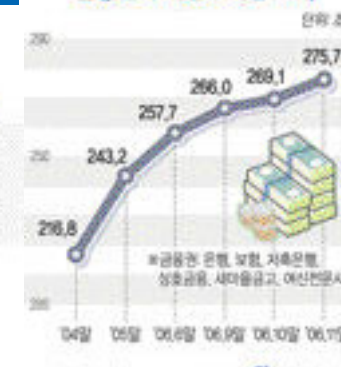
연소득	대출가능 금액	6억원 아파트 구입때 매입가 대비 대출금 비중
3000만원	1억 2000만원	20.0%
5000만원	2억원	33.4%
7000만원	2억8000만원	46.8%
1억원	4억원	66.8%

※만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대출 기준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월소득 대비 월 부채비용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5.77%(고정금리)에 만기 15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억원 정도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이



대출한도 年 소득 4배 이내...제2 금융권도 규제 실수요자 피해 우려... 금감원 '피해막기' 고심

국민은행 DTI 확대 적용 첫날인 3일 은행 각 지점에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자 시중은행들은 DTI 규제로 자영업자와 은퇴 생활자 등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의 주택구입 봉쇄 등 예견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기준으로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 기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따라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다소 높은 45~50%의 DTI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1월 말까지 모범 기준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며 "풍선 효과를 감안해 제2금융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모범 기준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3월부터 이 규제를 전 지역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기준에 담을 방침이다.

또 현재 충분한 자산이 있지만 명확한 현금흐름이 없는 소비자들도 구제한다는 복안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외국인 직접투자 2년 연속 감소

지나해 112억弗·전기·화학업종 성장세

지나해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3일 지나해 이뤄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112억3천만 달러(신고기준)로 집계돼 목표치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북한 핵실험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와 달리 목표치를 넘어서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2004년 127억9천만 달러를 고점으로, 2005년 115억6천만 달러로 9.6% 역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2.9% 줄어드는 등 반전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와 비슷한 110억 달러선을 제시했다.

작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인수합병(M&A)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43억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3% 감소한 데 비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외국인이 직접 설립하는 형태인 '그린필드형 투자'가 69억2천700만 달러로 10% 늘어남에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61.7%를 차지해 내용 측면에서는 내실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42억3천만 달러로 37.1%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금융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줄면서 서비스업 부분의 투자는 66억4천만 달러로 20.4% 줄었다. /연합뉴스

100엔 = 779.60원

9년2개월만에 최저치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원·엔 환율은 작년 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9년2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엔당 770원대 내로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도쿄시장 휴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업체들이 이월 매물을 꾸준히 내놓으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779.60원을 기록하며 지난 97년 10월 27일 771.40원 이후 처음으로 770원대로 하락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3일 오후 원·엔 환율이 779.55원까지 내려간 가운데 서울 SC제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환율 변동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엔·원 환율은 100엔당 779.60원에 마감했으며, 지난 97년 10월 27일 771.40원 이후 9년2개월만에 770원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나라빛 얼마가 맞나

기획예산처 "GDP의 22%"

국회 예결위보고서 "46%"

정부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실제 채무중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아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 발표치보다 2배 가량인 40%대 중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는 "오려려 보고서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우리나라의 재정총량규율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은 2004년말 현재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 76.4%에 미달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로 이 비율은 45.6%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정부가 OECD에 제공하는 국가채무 자료 자체가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의 특정채무만을 담은 것으로, 국제비교기준인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산정에는 이월 외에도 '준정부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포함돼야 하나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는 이 부분이 대부분 제외돼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6%에 달해 정부 발표치의 2배 이상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뉴질랜드(17.8%), 영국(44.2%)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중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없어진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예산 상반기에 131조 푼다

전체의 65%·경기활성화 위해 조기집행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41%가 1·4분기에 집행되는 등 상반기에 국고에서 해당 부처로 나가는 예산이 전체의 65%에 이른다. 특히 수송·교통사업비의 88%, 서민생활안정사업비의 60%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의 올해 전체예산 200조5천519억원 가운데 65.3%인 131조2천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됐다. 올해 상반기 집행비율은 작년의 62.2%보다 3.1%포인트가 높을 전망이다. 2005년의 66.7%에 비해서는 1.4%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그 이전의 연도별 상반기 집행비율은 2001년 63.0%, 2002년 65.4%, 2003년 62.0%, 2004년 63.7% 등이었다.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분기별 집행비율은 1·4분기 41.4%, 2·4분기 23.9%, 3·4분기 20.5%, 4·4분기 14.2% 등으로 1·4분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요 사업비로는 수송·교통 투자사업비 16조3천억원중 88%인 14조3천억원, 서민생활안정 예산 11조3천억원중 60%인 6조8천억원이 각각 상반기에 집행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67%인 9천억원, 사회서비스사업비의 73%인 8천억원이 각각 상반기에 해당부처로 나간다. /연합뉴스

IT수출 2년연속 1,000억弗 돌파

막가는 현대차 노조

이동통신·반도체 견인...사상 최대 흑자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IT수출이 원화 강세, 주요 수출제품의 단가 하락과 경쟁 심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천134억 달러를 기록, 2년 연속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반면 IT수입은 589억 달러에 그쳐 IT 분야 무역수지는 사상최대인 5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산업의 무역 흑자를 주도했다.

정통부는 특히 지난해 IT분야 수출 성장률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10.8%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회복,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역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 9월 처음으로 월간 기준 IT수출 9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9월 1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면서 11월까지 세달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월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본격화했다.

정통부는 내년도 IT수출이 지난해보다 12% 성장한 1천2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휴대전화는 신규 서비스 지원 단말기 중심으로 수출 회복이 기대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이 전체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IT수출 구조는 기존 완제품 위주에서 부품·부품 중심으로 고도화될 것이 특징이다.

이동통신단말(제품), DTV(제품), 셋톱박스, 모니터 등의 완제품 수출이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 부품품, DTV 부품

품, 반도체·패널·범용 부품 등 고부가가치의 부분품(부품) 수출이 두 자릿수대로 증가함으로써 IT수출구조가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에 비해 지난해 수출이 증가한 부품을 품목별로 보면 이동통신 부품품(27.3%), DTV 부품품(26.1%), 반도체(16.8%), 패널(65.5%), 범용 부품(22.5%)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올 수출 전망 3,600억弗

작년보다 10.4% 늘어

올해 수출은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겠지만 어려워진 대외여건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며 3천600억달러선 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입은 10.9% 늘어난 3천430억 달러, 무역흑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170억 달러선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자원부는 3일 내놓은 '2007년 수출입 전망'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14.6%)보다 낮은 10.4%로 예상

하며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산자부는 올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되겠지만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경제가 주택경기 침체 영향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수출 증가를 둔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켰던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확대와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원·달러 환율이 등락폭이 커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성과금 문제로 노사 마찰 사무직서 윤여철시장 폭행 휴일특근·잔업거부 투쟁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가 연말 성과금 50%를 줄여 지급한 것과 관련, "오는 5일까지 성과금 50%를 지급하지 않으면 파업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3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성과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노조는 연말 성과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 조합원이 휴일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각 사업부의 노사현안 협상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4일부터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각 공장 출근투쟁, 철야농성, 전 조합원 규탄집회를 잇따라 갖고 성과금 관련 특별교섭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오는 10일 대규모 상경투쟁단을 조직해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도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대차 울산공장 사무직은 성과금 삭감 지급에 항의하는 노조 집회간부 50여명이 윤여철 사장 등의 출입을 막고 행사장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마찰을 빚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윤 사장이 얼굴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 베스트 기업 삼성전자 '4관왕'

삼성전자는 홍콩의 금융 전문지인 아시아머니의 '아시아 최고기업 조사(The best of Asia)'에서 한국 기업중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등 4개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아시아머니가 국가별로 6개 부문을 조사, 12월·1월 통합호에 게재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가운데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기업설명과 투명성 최고기업', '주주관계 최우수기업', '경영 최우수기업 대기업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